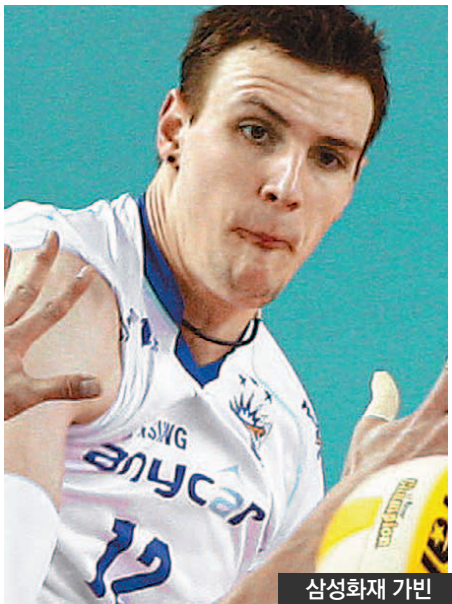




삼성화재 가빈

가빈이 더 높네...안젤코 납작코

가빈 33득점·블로킹 등 원맨쇼
원조괴물 안젤코와 맞대결 완승

V리그 외국인 최고 거포를 자부한 돌이 한 코트에 선다는 사실만으로도 화제였다. 배구 팬들도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각별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12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삼성화재와 KEP CO45의 V리그 남자부 1라운드.

초점은 친구 최강 용병들의 맞대결이었다. 최종 승자는 삼성화재의 폭격기 가빈 슈미트(25)가 됐다. 2년 만에 국내 코트로 돌아온 KEP CO의 '크로아티아산 거포' 안젤코 추크(28)는 파워 넘치는 스파이크를 때렸으나 2% 부족했다.

세트스코어 3-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록에서부터 가빈이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 33득점에 공격성공

률은 62%에 달했다. 안젤코는 23득점을 올렸으나 공격성공률이 고작 48.78%에 그쳤다. 수비에서도 가빈의 역할은 빛났다. 4개의 유효 블로킹을 잡아내며 동료들의 디펜스를 받쳤다. 안젤코는 1차례 블로킹 득점 포인트를 획득했으나 유효 블로킹은 단 한 개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유효 블로킹은 팀 수비로 이어진 블로킹으로 해당 선수의 수비력에 대한 기준이 된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절대 패하지 않는다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란 옛 말은 돌에게 달리 적용됐다. 이미 신장 207cm 높이에서 뿜어내는 가빈의 제공권과 강타는 국내 배구에서 '알고도 막을 수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안젤코는 신장 200cm로 적어

도 높이 면에선 토종 블로커들이 막연하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정도가 됐다.

더욱이 가빈은 용병답지 않게 공격뿐 아니라 디펜스에서도 충실히 제 몫을 하며 박철우와 유기적인 포지션 체인지를 해낸다. KEP CO 신춘삼 감독이 "상대의 탄탄한 수비에 안젤코가 막았다"는 평가 그대로이다.

삼성화재 신지용 감독은 "우리 팀에 2년 간 머물렀던 안젤코의 모든 걸 꿰고 있다. 그가 선호하는 공격 코스, 볼 터치 습관까지 낱알이 파악하고 있다. 내줄 부분은 포기해도 막을 수 있는 건 확실히 차단하는데 주력했다"고 옛 제자 봉쇄법을 설명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KEPCO 안젤코

만리장성에 꼭 막힌 女배구

여자배구월드컵 3R 중국에 0-3 무릎

한국이 중국의 높이와 파워를 넘지 못했다. 한국은 13일 일본 삿포로현의 홋카이도현 체육관에서 열린 2011 여자배구월드컵 3라운드 3차전에서 중국에 세트스코어 0-3(12-25 8-25 16-25)으로 졌다. 이로써 중국과의 역대 전적은 11승 59패가 됐고, 2010 세계선수권에서 3-0으로 승리한 이후 4경기 연속 패했다.



김형실 감독

●중국의 높이에 힘 못쓰고 완패

중국의 평균 블로킹 높이는 299cm, 한국의 평균 스파이크 높이는 296cm. 빠른 이동공격과 센터진의 속공이 살아나지 못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높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은 리시브 불안과 세터-공격수 간 호흡 부재라는 고질적인 약점을 개선하지 못하며 1세트부터 끌려갔다. 오히려 중국이 양준정과 휘리치를 앞세운 속공과 빠른 이동공격을 펼치며 한국을 압도했다.

2세트에서도 박정아의 오픈 공격은 중국 센터진의 블로킹에 완벽하게 막혔고, 김혜진의 이동공격도 중국의 블로킹을 피해 때리기에는 스피드가 느렸다. 선수들은 단 1포인트라도 더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한국은 3세트에서 황연주의 활약을 앞세워 초반 9-9까지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 김희진과 박정아, 주예나 등 대표팀의 막내 선수들도 주눅 들지 않고 제 역할을 다했다.

하지만 중국의 공격력은 매서웠다. 이번 대회에서 중국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휘리치와 주요 왕이메이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영패를 당했다.

1승7패를 기록한 한국은 도쿄(메트로폴리탄 경기장)로 장소를 옮겨 16일부터 3일간 도미니카공화국·알제리·아르헨티나와 마지막 4라운드를 펼친다.

삿포로(일본) |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13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V리그 남자부 1라운드 경기에서 현대캐피탈 문성민(오른쪽)이 상무신헌 김나운의 블로킹을 피해 강한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천안 | 국경현 기자 onecut@donga.com 트위터 @k1isoncut

문성민 17점 컴백쇼...하종화 “하하하”

에이스, 선발복귀전서 강서브 등 맹활약
현대, 3-1 상무 잡고 3연패 탈출 시즌 2승
하종화 감독 “문성민 효과로 분위기 반전!”



“오늘 경기는 어떨까요?”(취재진)

“아휴, 정말 잘

하고 싶는데 말처럼 쉽지 않네요.”(현대캐피탈 하종화 감독)

잘 풀리지 않는 팀의 벤치와의 무의미한 대화는 NH농협 2011~2012 V리그 남자부 1라운드 내내 이어졌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뻔히 보이지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건 적었기

에 답답함은 훨씬 컸다. 그렇게 쓰라린 시간을 보내던 하 감독이 모처럼 활짝 웃을 수 있었다. 13일 천안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상무신헌과의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였다.

최근 3연패 늪에 빠졌던 현대캐피탈은 이날 세트스코어 3-1(25-16 25-18 20-25 25-18) 승리를 거뒀다. 시즌 2승(4패)째를 올린 현대캐피탈은 비로소 중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깔끔한 승점 3점짜리 승전고도 기뻐했지만 무엇보다 ‘에이스’의 부활이 반가웠다.

현대캐피탈 레프트 문성민(25)은 올 시즌 개막 이후 처음 선발로 출격한 무대에서 17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를 진두지휘했다. 현대캐피탈이 끝 모를 추락을 하게 된 이유

가 문성민의 부상 이탈이란 점을 감안할 때 상무신헌전은 의미가 남달랐다.

부상 후유증을 어느 정도 털어낸 모습이었다. 그간 발목 수술과 어깨 부상이 겹친 바람에 컨디션은 최악에 가까웠다. 가끔 원 포인트 블로커로 나서 살짝 감각을 익히는데 주력해온 문성민의 본격적인 출전은 2라운드 중반 이후로 점쳐졌으나 여의지 않은 팀 성적에 마냥 쉬고 있을 순 없었다.

문성민은 서브에이스 2개와 포인트로 연결된 블로킹 2개를 잡아내며 4차례 세트를 모두 소화했다. 후위 공격을 자제하는 등 최대한 몸 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확실히 처리했다. 경기 초반 강한 스파이크를 시도했지만 상대 블로킹 벽을 내내 위협한 지난

시즌과는 아무래도 파워에서 약했다. 몇 차례 찬스가 무위에 그치자 2세트 이후 문성민은 노선을 바꿨고, 안정감에 포커스를 맞췄다.

현대캐피탈 벤치는 분위기 반전과 강한 서브에 높은 점수를 줬다. 하 감독은 “우리 팀이 약한 서브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문)성민이의 복귀로 강 서브가 구현돼 전체적으로 상승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무겁게 가라앉은 기류도 많이 올려졌다”고 갈채를 보냈다.

문성민은 “코트 밖에서 머문 동안, 정말 뛰고 싶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상대 블로킹에 많이 걸렸는데, 감각을 되살리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부상 상태도 많이 나아졌다. 파이팅을 불어넣으려 노력했다”며 미소를 지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편집 | 김민규 기자 mikkyang@donga.com 트위터 @mikkyang

카이스티기업경진대회금상수상
2009. 11. 4

세계최초 음이온 발생 친환경 LED램프!

악취냄새제거!
담배연기제거!
공기청정/공기살균!

산림욕!
가정과 사업장에서 블루엔으로 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하여 블루엔이 한발 더 앞가겠습니다”

SBS 아이디어 하우머치 연키먹는 전구 경매가 “41억”
2009년 8월 20일 방영

BN-105 푸른색 음이온 LED램프
無오존

BN-505 푸른색 음이온 헬스케어
2012년형 신제품

블루엔 음이온 LED램프 및 다목적 청정제품은 공기중의 바이러스 및 세균을 항균·살균 합니다.

기존 할로겐, 백열등, 형광등 대비 60~80%의 전기로 절감효과!

이런곳에 사용하면 좋아요!!

- ☑ 병의원, 관공서, 학원, 영화관, 백화점, 술집, PC방, 노래방, 미용실, 당구장, 식당, 모텔, 애견센터 등의 청정기능
- ☑ 어린이집, 오피스텔 등의 살균기능
- ☑ 유동인구가 많은 곳, 청결이 우선되는 곳
- ☑ 수험생의 공부방에 안심맞춤
- ☑ 집중력 향상으로 성적이 쑥 오릅니다!
- ☑ 차량에서 숨속느낌을!
- ☑ 산림욕 효과로 음향방지와 담배냄새 제거

NAVER 블루엔 검색 www.bluenlife.com

전국사업자모집

불황 없다는 친환경 기능성 LED 조명 사업!
LED 조명시장 규모 2012년 2조8천억 전망!
SBS 아이디어 하우머치 경매가 41억!

2012년 신제품 대량 출시!

소액 투자로 연봉 1억 이상 도전하실 사업자를 모집 합니다.

발명특허 획득에 빛나는 블루엔의 기술력!!

- ▶ 발명특허등록 - 기능성 LED 형광등
- ▶ 발명특허등록 - 나노렌즈 미국특허
- ▶ 발명특허등록 - 음이온 발생기를 구비한 LED 램프
- ▶ 발명특허등록 - 식물재배 장치
- ▶ 발명특허등록 - 애견케어용 음이온 근적외선 전구
- ▶ 우수발명 우선구매 추천품 선정(특허청)

영업관리직 및 딜러모집 031)251-1572

제품구입 및 대리점문의 1588-0609

판매원 : (주)블루엔라이프/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503-16 월드타워 3층
국민은행 604437-01-012349 (주)블루엔라이프

제조원 : (주)블루엔 · 부설연구소/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373-1
KAIST 에너지 환경연구센터 3102호